

제 36 호

연중제 18 주일
(강림 후 8)

1973. 8. 5

숲 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료]



우리 모두 일합시다!

안 북 진 신부

라디오에서 울려 나오는 아나운서의 힘찬 소리 “새마을 운동”,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새마을 가꾸기로 정하고 모든 국민들의 근로 정신을 더 한층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치고 일하지 않았던 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숙원인 “가난의 타도”가 더 심각히 느껴지므로 국민들의 분발을 일깨우는 뜻이겠지요. 일이란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 순간부터 있었고 또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여러분! 우리도 가난을 타도 하기 위해 일합시다. 많은 일중에 가장 가치있는 일을 합시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키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가면서 하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기타 다른 일은 이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년에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화해의 성년을 선포하시고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는해로, 그리고 남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을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교형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도다.” 이렇게 외치는 그 주인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피땀으로 가꾸어 놓은 곡식들을 일꾼이 없어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가며 이루어 놓으신 인류 구원의 영원한 수확이 일꾼의 부족으로 창고에 쌓여지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교형 여러분! 화해의 성년동안은 해마다 교우 한 사람이 영혼하나 구하는 때로 정합니다. 교우 한사람이 일년에 영혼 구하기란 마음만 있다면 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교우들은 금년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금년 성탄날 밤에는 내가 구한 영혼 하나를 야기 예수님께 선물로 바치도록 합시다.

<전주 중앙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비나이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야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날 구하고 돌보실 분 당신이시니, 야훼님 더디 오지 마옵소서.

□제1독서 (출애굽기 16 : 2-4, 12-15)

내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주리라.

□충계송 ◎주께서 하늘의 빵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강한 자의 빵으로 인간을 먹이시고 배 부르도록 음식을 내리시니라. 하느님은 그들을 당신 성지로, 오른 손이 얻으신 그 산으로 이끄시니라. ◎

□제2독서 (에페소 4 : 17, 20-24, 성서 P. 442)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 임으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6 : 24-35, 성서 P. 217)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 신자들의 기도

1.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여, 비를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바치는 이 감사의 기도를 가루하게 여기사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우리를 기르시는 주여, 전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주소서. ◎

3. 위로자이신 주여, 가난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신념과 용기를 불어넣으사 우리 모두 당신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바를 모두 들어 허락하시어, 평화와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

✽ 이 주간의 성경 ✽

✽ 예수의 거룩한 번도

- 6(월) 독서 (베드로 후서 1 : 16-19 성서 P. 538)
복음 (마 르 코 9 : 1-9, 성서 P. 95)
- 7(화) 독서 (디모테오 전서 3 : 8-13, 성서 P. 478)
복음 (마 태 오 14 : 22-36, 성서 P. 35)
- 8(수) 독서 (디모테오 전서 3 : 14-16, 성서 P. 478)
복음 (마 태 오 15 ; 21-28, 성서 P. 36)
- 9(목) 독서 (디모테오 전서 4 : 1-5, 성서 P. 478)
복음 (마 태 오 16 : 13-23, 성서 P. 39)
- 10(금) ✽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
독서 (고린트 후서 9 : 6-10, 성서 P. 417)
복음 (요 한 12 : 24-26, 성서 P. 238)
- 11(토) 독서 (디모테오 전서 4 : 6-10, 성서 P. 479)
복음 (마 태 오 17 ; 14-19, 성서 P. 41)

□대화의 광장□

□잔디밭□



사랑의 공동체

최 이 섭

윗 제목이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의도에 적합한지는 모르겠다. 제목이야 어쨌든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이 백분의 일이라도 표현되어 모든 이들에게도 공감이 가게 하는 것이 내가 쓰는 동기의 전부이며, 또한 내 마음은 흐뭇할 것이다.

나는 10일전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ROTC 하기 병영훈련이란 피교육차 35사단에서 4주간에 걸쳐 장교후보생 교육을 받게 되었다. 딱 짜여진 생활로 극도를 지키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지도자로서 마치고 저하는 대학생들 실천과 같은 훈련을 쌓게 하는 훈련이다.

두번째 맞이하는 오늘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기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30여명의 신병교육생이 구슬빛 얼굴로 조용히 앉아있는 곳에 우리도 조용히 들어가 미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자 신부님과 얼굴이 얇힌 교우 여고생 70여명이 화사한 웃음으로 들어왔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웠다. 성당에 온다는 그 부분 마음은 그 이상으로 부풀어 말문이 막히고 영원한 환희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강론을 통해서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사랑하심을 믿는자가 신앙인이요,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자가 참된 종교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느님을 통한 공동체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겪어보지 못한 분은 잘 모르겠으나 그 사랑의 뿌듯함은 모든 형용사, 부사를 써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물론 자신의 표현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 사랑이란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오직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느끼고 볼 수가 있었다.

나는 지난날 내가 꼭 해야겠다는 것 외에는 사랑의 손길에 공격한 편이었다. 내가 조금 뛰면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이상으로 모든 이에게 기쁨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처해있을 때는 필연으로 느껴지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관심한 현대 인간의 저변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나를 통해 느낀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한 그 보다 더 값지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어느 중군신부님의 "위문편지"와 병석에서의 어느 신부님의 감사편지에 이어 재인식하게 되었다.

과거를 지낸 선생님, 형님, 미래가 있을 젊은이여, 현재 사랑의 공동체를 갈구하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푸시다. 편지도 좋고, 위문도 좋고...

오늘 위문외주신 모든 학생과 주선행 주신 유장훈 신부님, 미사를 드려주신 박진량 신부님, 그리고 김길수선생님, 와 주신 회원, 고단한 이밤 감시병의 눈을 피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부회장)

752-23,5229부대 학생대대 3중대 5구대 142번

□독서회 안내□

성 바오로 서원 독서회

양서 출판에 전념하고 있는 성바오로 서원 출판부에서는 독서가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또 염가로 양서를 구독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독서회원 제도를 마련하여 널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바오로 서원을 애용해 주십에 감사드리면서 여러가지 특전이 많은 회원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 전 ○

1. 본 출판부 간행물은 우송시 15%할인, 단 송료는 본사 부담합니다.
성바오로 서원에서 직접 구입 할때에는 20%할인 해드립니다.
2. 성바오로 서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타 출판사의 서적에 대해서도 우대 합니다.
3. 출판 될 서적을 선불 주문시에는 25%할인 해드립니다.
4. 모든 회원에게 1년에 1회 본 출판부 간행물을 1권씩 증정 사재 합니다.
5. 새 회원을 3명 추천해 주시는 회원에게는 유니버살 문고 1권을 증정합니다.

○ 규 정 ○

1. 독서회 가입비는 500원이며 본 회비는 책 주문 선납 보증금으로 예치해 둡니다.
2. 본 출판부 간행물을 1년에 최소한 7권을 구독하셔야 합니다.
3. 서적 주문은 보내드리는 도서목록과 광고물을 보시고 동봉해 드린 주문서로 신청해 주시면 즉시 보내 드립니다.
(수시로 신간 도서안내와 광고물들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입 회 ○ 성 바오로 서원 (중앙 성당 옆, 전화 ㉠ 7389)으로 문의 바람.

□ 양 지 쪽 □



빈 조개 껍질

소풍이라면 보물찾기라는 것이 마치 실과 바늘의 관계만큼이나 밀접하여 꼭 따라 다닌다. 그런데 나는 10여년의 소풍 관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보물 찾기와는 그리 인연이 없었다. 소위 그 보물이라는 것을 탄 적이 거의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다 보니 보물 찾기가던가 경품놀이, 또는 그 700만원짜리 복권 등에는 그리 흥미나 관심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는 소위 식욕(?)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서도 그 700만원의 매력만은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모양이다. 딱 두번 그 복권을 산적이 있다. 한번은 얼큰한 김에 친구와 어울려서였고, 한번은 고학을 한다는 귀엽게 생긴 남학생이 내 사무실을 찾아 왔을 때였다. 그런데 나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모두들 어렵게 살다 보니 그런지도 모르나, 너무나도 그 복권에 열중들하고 있으니 어쩐지 으시시한 기분마저도 든다. 마치 영화에서 보는 새벽의 도박판 같아서 말이다.

어렸을 때 우리는 골잘 과자 껍질 작난을 했다. 사탕도 귀한 때인지라 요사이와는 달라서 그 사탕이 갖는 매력이 썩 컸다. 그런데 그만 어떤 때는 사탕인 줄 알고 집었는데 그만 그 무게와 감촉이 달라 그 껍질을 벗기고 보면 실망과 분노에 얽히게 된다. 빈 껍질들을 툭툭 뭉쳐서 재포장 해놓으면 그만 깜박 속아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기대 가능성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그 허무한 마음 내지는 분노의 감정은 대개 공통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진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가난하게 사는 아버지든 그 아들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 주기를 기대한다. 그 아들이 착실하고,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만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되어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가끔 그 아들의 재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대를 걸어서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기대를 잘못 걸게 될 때, 도박판에서 한뭉을 보겠다고 살림을 날린다거나 일은 하지도 않고 복권만 열심히 사대는 일만을 하게 된다.

불이 빠진 바닷가에서 가끔 조개를 줍는다고 모랫바닥을 뒤지고 다닌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진짜 조개보다는 빈 껍질만을 줍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갑)

요심이 (3) 김병오



더위에 건강 하십시오
성 바오로 서원

미 사 시 간 안내

	중 앙	노 송 동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전 동
주	오전 6, 10시	6, 10시	10시	10시	10시	5시만, 9, 10시
일	오후 7시30분	8시	4, 8시	8시	8시	8시
평	오전 월, 수(6시) 금(10시-어머니)	금(10시-어머니)	월, 수, 금(6시)		월, 목(6시)	월, 수, 금(6시)
일	오후 화~목(8시) 토(5시)	화~목(8시) 토(6시-아동)	화, 목, 토(8시)	8시	화, 수, 금, 토(8시)	화, 목, 토(8시)

전주전신전화국 앞
제과 @5011 찻집 @5013

개업

프 랑 스 제 과
* 임 금 님 찻 집 *

「프랑스제과」에도 대형 에어컨 설치!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원준(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왕자표연탄

전화: @5287 @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윤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
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수옥 (분도)

전주 시내 6개 분당 소식

1. 성년 기도문 (성 프란치스코 지은 "평화를 구하는 기도")을 성년동안 매일 열심히 바칩시다.
2. 이수현(보나벤투라)신부 군중 대위로 임관 (8월 4일, 광주 상무대)
3. 전주 교구 중·고등학교 연합회 지역대회 (8월11-13일, 김계 천주교회)
4. 주일미사 제1독서 (구약성경)-경향잡지에 (8월호 P. 45)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3874 사도 회장 김중순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각 부장은 신년도 예산안 지참 바람.
2. 꾸리아 월례회 (다음 주 오후 2시, 강당)
3. 신용조합 인감대장 작성 (조합원 인감 제출 요망)
4. 분당 살림에 관심을 가지시다.

세계적인 경제파동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가정에서 겪으시는 어려움 보다도 더 심각한 애로에 분당 살림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가 8. 9월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본당의 교무금 미수액은 무려 150여만원으로 그 납부성적이 57%밖에 안됩니다.

75% 넘는 분당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다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십시일반으로 협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교와 본당 신자의 긍지를 지킵시다.
-본당 사도회 아뢰-

□지난 주일 봉헌금 30,284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사도 회장 이태영

1. 성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 ①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 ② 제1차 강습회 (희망자는 사무실에 등록바람)
때 : 8. 24(금) 13시-26(일)14시만까지
곳 : 대전시 갈마동 「소년들 마을」 (갈마 풀장)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인 경품놀이 있음)
3. 학생회 월례회 (오늘 오후 4시)

□지난 주일 성미 (2말 5되) 누계 2가마 6말 8되
지난 주일 봉헌금 11,485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학생 브레시디움 주회 시간 변경
일요일 9시-공식미사후
2. 신용조합 임원회 (8월11일 밤8시 미사후)
3. 교무금 납부를 위한 가정 방문

74회계연도를 2개월 앞둔 7월말까지의 교무금 납부 상황은 52%로, 그 미수액이 73만원이 됩니다. 분당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오는 10일부터 사도회 임원(회장, 재경부, 차장, 총무)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 가정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분당 살림을 생각하시어 적극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5,93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 회장 조성호

1. 본당 주보축일인 복자축일 (9. 26)에 견진성사 전진 교리 유인물을 배부하오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2. 교무금 완납하여 분당 살림 도우시다.
3.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구역회장과 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4. 성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 전주 방지거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만입니다.
5. 본당 운영 보고

① 7월중 잔액 14,489원
수입 (155,844)-지출 (141,355)
② 72. 10. 1-73. 7. 31 잔액 143,012원
수입 (1,547,263)-지출 (1,404,251)
□지난 주일 성미 (3말) 누계 174말 7되
지난 주일 봉헌금 9,42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수요일은 아동미사 (평의회 때문에)
2. 9월 23일에 견진 (희망자는 총무처에 신임 바람)
3. 사도회 월례회 (오늘 밤 미사후)
4. 중·고학생 교리 (10시 미사후)
5. 구이 보광 기독교학생과의 친선경기 성료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6. 월말 재정보고 (잔액 17,910원)
수입 (153,918)-지출(136,008)

□지난 주일 봉헌금 9,886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밤 미사후 사제관
2. 유아영세 오늘 10시미사후 (매월 첫주일 10시미사후)
3. 성년 기도문을 안받으신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세요.
4. 새 전동성당을 이루하는데 적극 협조하신분
박관향(10,000), 최준열(5,000), 공옥남, 이현재, 강순이(각 3,000), 이창수, 범현규, 한애자, 김경래, 탁봉애 성집례(각 2,000), 박은미, 박경래, 김완기, 오창기, 박복순, 송혜자, 조은식, 최봉래, 김현갑, 홍금순, 이경순, 유예분, 오경득, 이경애(각 1,000), 한기순, 탁문이, 한성녀, 임순이, 박영래(각 500) 박 호


타본당 이마리아<복자>10,000, 조모니까 <복자>5,000
손순녀, 윤마리아<서술>각 1,000
대건제원일동(5,000) 소계 86,300원
루계 681,000원, 자갈 200루터, 막걸리 3섬
□지난 주일 봉헌금 27,002원, 감사합니다.

◎ 닭·염소·야생동물 일체 ◎

화랑 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 시장 닭전 전화 6691 (교환)108



최 씨 관 집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6691 교환85번)